



전북농협·여성단체협, 영농철 일손돕기 구슬땀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사)전북여성단체협의회(회장 윤정미)는 지난 24일 입실군 오수면 딸기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올해 전북농협과 전북여성단체협의회는 농촌일손돕기 해소를 위해 회원단체 릴레이 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릴레이 일손돕기에는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단체인 한중여성교류협회 전북지회(회장 이상순), 밝은사회 전북지역여성클럽(회장 오종민) 회원과 농협입실군지부(지부장 이진산), 오수관촌농협(조합장 정철석)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영농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딸기농가에서 일손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정재호 본부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손돕기에 참여해주신 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전북농협은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농촌일손돕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순 회장과 오종민 회장은 "일손부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일손부족 등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장수군, 6.25전쟁 72주년행사·호국영웅 위로연

6.25 참전유공자회 장수군지회는 25일 11시 장수군민회관에서 6.25전쟁 제72주년 행사 및 호국영웅위로연을 이희성 부군수, 김용문 군의장, 박용근 도의원, 최홍식 장수군수, 당선자 정영선 농협장수군지부장, 송재근 무진장육협조합장, 한상대 신림조합장 및 6.25 참전 유공자와 보훈단체장, 각계 기관장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기념식을 실시했다.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장수군지회(회장 한 근)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기념식에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에서 6.25전쟁 제72주년 행사를 맞아 손병덕 참전유공자와 7명에게 장수군수 표창패를 수여하였다.

6.25참전유공자와 한 근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6.25전쟁이 일어난 지가 어느덧 72주년이 되었다며 우리가 싸워 흘린 피와 땀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경험했던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모든 국민에게 올바르게 교육하여 다시는 이 땅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갖추자"고 하였고 이희성 부군수는 기념사에 "장수군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으며 참전호국영웅의 노고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완주군 동상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양교육 실시

완주군 동상면(면장 서진순)은 25일 동상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 마음이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 분노조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소속 정유수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 분노조절교육은 적절한 분노는 위협으로부터의 자기방어를 위한 필수 감정이지만, 만성화 된 분노는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저해하고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였다. 보다 더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명상을 통해 분노조절 방법을 익히고 웃음의 전염성을 강조하였다. 참여자 20명 어르신 모두, 영상을 틀어놓고 호흡 명상법을 배웠다. 스트레스를 잡을 이루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마음이 한결 편안해 졌다고 말했다.

서진순 동상면장은 "현재 65세이상의 어르신들이 노년기가 되면서 고독과 외로움으로 삶의 의욕이 저하된다고 한다. 이를 예방하여 어르신들이 공동체 생활을 접하면서 외로움을 잊고 더 많이 웃으면서 마음이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남원시, 관광홍보 전문인력 양성 청년아카데미 수료

남원시는 지난 23일, 관광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3월 10일 개강한 청년아카데미 양성교육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광 프로그램 기획과 이벤트 축제 진행 등의 교육을 통해 관광분야에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서유영 서울여자대학교 겸임교수, 류재현 내나라 여행박람회 총감독, 이종원 한국여행자협회 이사, 이정수 KBS 아카데미 전문강사 등 유명 외부강사를 초청해 체계적인 이론과 현장의 생생한 실무를 전했다.

이번 수료생들은 앞으로 자생적인 관광동아리를 조직해 춘향제를 비롯한 남원의 각종 축제와 행사 등의 홍보와 기획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양인환 남원시 관광과장은 "모든 산업은 훌륭한 토양 위에 열매를 맺기 마련이며 청년은 남원시 관광산업의 융성을 위한 토양이라며, 이번 청년아카데미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남원 관광의 지평을 바꾸어 놓아 남원 관광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방방곡곡 온기나눔 RUN

전북농협, 보훈대상자·취약농가에 쌀 2000kg 전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송혁), 이서농협(조합장 송영욱)과 함께 지난 24일 이서농협에서 국가유공자와 취약 농가를 위한 감사의 쌀 2,000kg 전달식을 가졌다.

전북농협은 지난 5월 실시한 임직원 걸음기부 캠페인 목표 5천만보 달성을 기념하고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나눔과 더불어 따뜻한 온기나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쌀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이서농협을 시작으로 군산, 김제, 무주, 장수 등에서 릴레이로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

정재호 본부장은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운 삶은 국가



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이룩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여러 구성원과 지속적인 상호협력력을 통해 가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서울 50+사회적경제 팬슈머 현장투어 성료

남원시는 서울의 50+(신중년)세대와 남원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현장 탐방을 통해 심도 있게 교류하는 '남원-서울 사회적경제 공감투어'를 지난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남원시 2개 사회적경제 기업현장에서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2022년 행정안전부 지역특화사업 선정 '남원-서울 50+사회적경제 팬슈머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도심경관플러스재단, 관광벤처 패스파인더, 남원시 사회적경제협의회,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 남원시가 협약을 체결해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상생, 지역 팬덤을 키우는 신개념 협력 사업이다.

이번 투어에 선발된 사회적경제 팬슈머는 2명으로 파워블로거 및 유튜브, 사회적기업 경영자 금융 및 전자·사회복지 경력자, 스마트워크 강사, 공익활동가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춘 분들이 참여하였으며, 3박 4일 동안 남원시 사회적경제 기업 2개소를 방문, 현장견학 및 체험, 경영자 심



층 인터뷰를 통해 경험한 내용들을 정리해 다양한 방식으로 SNS 성과물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서울 현지 홍보행사를 추진하여 단순한 제품 홍보가 아닌 남원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와 우수한 제품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 콘텐츠 생성도 병행 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중기청·보훈지청, 유공자 유족 명패 달아드리기 추진

전북중기청(지청장 최정길)은 지난 24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과 함께 국가유공자 유족 이순례 남 자택에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추진했다.

이날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유공자를 기리고 지역사회에 그 공헌을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 것으로, 이날 최정길 지청장과 신재경 청장은 전주시에 위치한 유족 자택을 찾아 직접 현관에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렸다.

명패를 달아드린 이순례 남은 무공수훈자 故 노기동 남의 배우자로, 고인은 육군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해 분투하신 공적을 인정받아 1971년 5월 22일 인헌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전북중기청 신재경 청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국가유공자 분들의 나라를 위한 노고와 희생에 대한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촌동 지역사회협의회, 사랑의 밀반찬 전달

전주시 덕진구 조촌동(동장 이강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홍식)는 지난 24일 조촌동 행복동네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결식어려 취약계층 10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밀반찬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 10여 명은 사랑을 가득 담아 준비한 불고기 김치 등 밀반찬을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묻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조촌동 푸리뜰집(여의민회점 대표 송송숙)에서 치킨 5마리를 후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유홍식 위원장은 "급격한 물가상승 및 전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밀반찬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밀반찬을 전달해 드리면서 좋아하시는 모습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했다. 최정길 전북중기청지청장은 "바쁘신 중에도 우리 지역의 국가유공자를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에 함께해주신 신재경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진안 정천면사회복지회, 어르신들에 감사탕 전달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정천면지회(지회장 김순화, 이하 정천면지회)는 24일 홀로 사는 어르신 25가구에 따뜻한 여름 건강간식 나실 수 있도록 감사탕을 준비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지탕 지원사업은 정천면지회에서 7년째 지회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독거 어르신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항상 더 많이 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못내 아쉬운 김순화 지회장과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대상자들은 풍성함을 선물 받는다.

특히 올해 지회활성화사업은 정천면지회가 2021년도 우수지회로 선정되며 지급받은 인센티브 20만원도 사업비에 포함시켜 지원대상자를 확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비전대, 직원노조와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정성모는 24일 대학 문화체육관에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박영미 전주비전대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범구 행정지원처장을 비롯한 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피구, 줄다리기, 2인 3자 계주 등의 경기가 펼쳐졌고, 하이라이트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은 직원들의 호기심과 재미를 한층 끌어올렸다.

행사에 참석한 산학협력단 프로젝트 담당 유세영씨는 "오랜만에 직원들과 대면으로 함께 땀을 흘리며 서로의 애심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오늘 이 시간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고 전주비전대 직원들 간의 건강한 조직문화가 새롭게 조성되는 단초가 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범구 행정지원처장은 격려사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결집된 역량으로 전주비전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며 교육의 공공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의지를 다졌다.

박영미 직원노동조합장은 "오늘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전주비전대학교 직원들 간의 단합과 소통을 통해 신뢰의 관계 정립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새롭게 일구어 나가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신의탁 반디품은마을 회장, 무주군에 장학금 기탁

반디품은마을(회장 신의탁)은 지난 23일 무주군을 찾아 인재육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면서 100만 원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적상면에 위치해 있는 반디품은마을은 일상에 지친 이용객들에게 캠핑장을 비롯해 각종 체험시설 운영과 휴식 및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신의탁 회장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무주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있어 지역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 기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인홍 군수(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이사장)는 "코로나 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기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며 "보내 주신 장학 기금은 우리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상전면 주민위원회,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진안군 상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주민위원회(위원장 원문희)는 주민 주도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우수사례를 찾아 제주도로 선진지 견학을 떠났다.

이번 성공 사례지 견학은 향후 상전면에 조성예정인 385 화합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주도형센터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견학에는 주민위원회 및 관계공무원 등 19명이 참여해 상전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무릉의자집, 질그릇이거점센터, 신산리마을카페 등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특산물 유통 활성화 성공사례와 주민 스스로 마을의 자원과 인재를 발굴해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을 직접 보며 적용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이번 우수사례 견학을 떠난 주민위원들은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특산물 유통의 활성화 성공방안과 센터에 참여하고 스스로 운영함으로써 마을이 발전하고 주민들이 더 행복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진안=우태만 기자